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0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7일 (음력 10월 20일) 목요일

“청산이나, 존속이나”

독자생존 나선 금호타이어 앞날 ‘첩첩산중’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그룹에서 분리된 후 독립경영을 통한 독자생존의 길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앞날이 첩첩산중이다. 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주주협의회와 자율협력워크아웃 체결을 위한 경영실사가 막바지로 치닫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가장 큰 고비였던 '중국 더블스타'로 해외 매각을 가까스로 막아 냈지만 앞으로 닥쳐올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채권단기 연기의 경우 지난 3~9월말 한 차례에 이어 9~12월말까지 두 차례 연기

올해 가장 큰 고비 '중 더블스타' 해외 매각 위기 넘겨 경영실사 마무리 단계...채권단 결정에 따라 운명 결정

된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경영실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를 '청산' 내지 '존속'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금호타이어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존속 가치'와 '청산가치'는 채권단협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미래를 어떻게 하는 복병 중 하나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면 채권단에 갚아야 할 이자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경영진의 가장 큰 고민은 채권단이 요구하게 될 노동조합과의 생존·지속 가치를 올리기 위한 자구안 요구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현재 노조와 2016년도 임금단체협상도 타결짓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양측은 올해 초 임금 2.5%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달부터 분교섭을 재개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타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노조집행부가 전면 교체됐지만 임금피크제와 사감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조의 협조 없이는 지구안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백훈선 금호타이어(노사협력 담당) 상무는 "노조와 성실하게 논의해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구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항토기업인 금호타이어가 다시 한 번 큰 파도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사의 힘을 한데 모으는데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뿌리가 하나

국회의 예산전쟁 심곡지 에서 국민의당이 40%의 힘을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제3인 국민의당이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에 사실상의 결승인을 내놓는 결과가 나왔다. 여소야대 체제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3순위 정당이 존재감을 부각한 현상이었다. 4일 여야 원내대표가 발표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1만2000여 명 증원안을 내놓았다가 지난 2일 협상 때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1만 5000명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 사진 = 뉴스시스



기록만 남고 사라진 시신들 '5·18 암매장 추가 발굴 절실'

“군 보고 기록 남았을 거라 생각...재조사 해야”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 조사가 화순 너릿재 터널 주변으로 확대되면서 암매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장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현재 살상 기록과 시신 목격 등의 증언은 있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암매장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 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와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등에는 7공수가 5월22일 너릿재 터널 입구에서 화순에서 광주로 넘어오던 25t 트럭에 총을 쏘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연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당시 연행자와 사망자의 신원과 행방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를 조사했던 과거사위도 보고서에 '당시 연행자와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록했다. 너릿재 터널 주변에서는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분석 결과 지하 60cm 깊이에서 의심 물체가 탐지됐다. 일반적인 매설물과 크기가 형태가 다르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재단은 상대적으로 암매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암매장 의혹 장소는 송암동 분뇨처리장 주변이다. 1980년 5월22일 계엄군이 9구의 시신을 싣고 나주 방면으로 갔다는 증언이 있다. 분뇨처리장 인근에 살았던 김포(당시 58세)씨는 지난 1995년 12월29일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수괴죄' 관련 검찰 조사에서 '80년 5월21일 밤 집 부근에서 십

한 총격전이 있었다. 다음날 22일 송암동 분뇨처리장 인근에 가보니 군인들이 시체 9구를 늘어놓고 풀을 덮어 놓고 있었다. 군인들이 화물차를 세워놓고 시체를 싣고 담요를 덮더니 남평쪽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이 시신 9구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5·18 당시 대대적인 암매장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계엄군들의 증언도 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년)의 '법담보고서'에서 김효겸 제11공수 82대대 4지역대 1중대 하사는 '광주에서 철수 후 국민대에 주둔할 때 82대대장 인솔하에 일부 병사들이 보병 복장을 하고 광주로 가서 가매장지 발굴 작업을 전개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김 하사의 증언 속에서 거론된 5·18 당시 11공수 82대대장이었던 이재원 중령도

같은 조사에서 '광주에서 올라와 저의 대대는 국민대에 있고, 다른 대대와 여단은 경희대에 있었는데 여단에서 광주에서 사체를 가매장한 병력들을 전부 차출해 보내라고 해 보낸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5·18 당시 김 하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최규진 11공수 82대대 4지역대장은 같은 해 5월31일 검찰에서 6월초 당시 여단에서 병력들을 전체적으로 인솔하고 광주로 내려갔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정원각이 발굴하고 왔다고 저에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정수만 전 유족회장은 "계엄군 간부들이 사살한 암매장이 더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셈"이라며 "가매장지 발굴 작업 지시가 11공수 외에 다른 부대에도 내려졌는지, 내려와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등 반드시 군 보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조위나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군 기록을 찾아낸 뒤 재조사를 해야 한다. 행방불명자들의 소재 파악에 관한 단서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